

신정휴 교수와 대학당국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법/관/악/인 서/명/운/동

총학생회, 대학원자치회, 여성동아리 협의회는 「화학과조교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1. 조교 성추행은 사실이었습니다.

우회정 조교가 밝힌 신정휴 교수의 행동은 사실이였으며 이는 각각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신체를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
- ②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 ③ 성추행 거절을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해하는 행위로서 분명한 성추행입니다.

2. 우회정 조교 해임은 성추행 거부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능력부족과 근무태만이라는 해임사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무일지와 화학과 연구실 사람들과 조교의 증언에서 드러나듯이 결코 해임의 사유가 될만한 근무태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MR Operator로서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년 1개월이 지난 이후의 일방적인 출근정지 통보는 명백히 해임이며, 그 이전에 성추행 거부에 대한 교수의 보복입니다.

3. 박사 한 분이 강제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우회정 조교의 사건공개를 막지 못한 도덕적 책임을 이유로 7.3일 신정휴 교수는 박사 연구원 한 명을 연구실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약 8년간 신정휴 교수 밑에서 연구해왔으며 유능한 과학자였지만 우회정 조교와 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4. 다른 피해자들이 사실부인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공개 이틀 후인 8.26일 22-308호 대학원생 두 명이 다른 피해여성의 집에 찾아가 호소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폭로내용이 사실이라고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대신 사건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에 날인하였습니다.

5. 다른 두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우조교 전임자와 A양을 신고수가 성추행했음을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우조교에 대한 성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 ! !

이제는 신정휴 교수와 대학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하지만 대학 당국은 지금까지 당사자간의 일이라고 하며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회정 조교의 대자보를 찢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동만 했을 뿐입니다. 학원행정의 책임있는 당국인 대학본부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의 해결방향에 대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행한 신정휴 교수는 계속적으로 '사실무근'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